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15강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지

저번 시간에 내 드린 화두를 점검하기로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수수께끼같은 말일까요. 전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아부는 "여시아문 일시불 재(在)..."의 바로 그 재(在)라는 글자에 대해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9. [在]. 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 獨坐一爐香. 金文誦兩行. 可憐車馬客. 門外任他忙.

뜬금없는 소리 하나 할까요. "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를 처음에는 "客來須看也不得. 放過. 隨後便打"로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뜻은 어쨌거나 간에, 이 해석도 그럭저럭 의미가 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번역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在).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재"라는 글자는 "있다"는 뜻입니다. 아부는 그 글자를 "부처님께서 어디 어디에 계시는 때"의 단순한 장소적 의미로 읽지 않고, 인간이 진정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그 궁극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틈새는 불교, 특히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 부단한 근본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부의 해답을 다시 들어봅시다. 위 인용의 번역입니다.

9. "[在]라. 객이 오거든 꼭 내다보아야 한다. 그대로 보내서도 안 되고, 뒤따라가 다간 맞는대(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

이것이 깨달은 자의 내면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안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이 '고요' 속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래는 해야 하고, 찾아오는 손님 접대도 마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손님'은 사람과 인연 맺고 세상사를 처리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총칭합니다.

집밖을 나서 길 위에 서기 산 속에서도 수행자들은 승가라는 '집단' 속에 있고, 또 사부대중들과 인연되어 있으며, 또 불교가 사회적 책임을 이 시대

事, 在途中而不昧家裡事, 始得. 所以道妙喜. 崑崙無著問. 滯和爭負絕流機."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길 위의 일들이 소홀해지고, 그렇다고 길 위에만 열정적이고 있으면 집안 일이 성급해질 것이다. 요컨대 집안에 있으면서도 길 위의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길 위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에 성(惺惺)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묘희(妙喜)가 어찌 무착(無著)의 물음을

손님과 도적을 어떻게 구분하나

여기서 '집안일(家裡事)'이란 자신과 홀로 대면하는 일이고, '길 위의 일(途中事)'란 세상과 더불어 대화하는 일을 말합니다.

세속인들은 길 위의 일에 바쁘고, 출가자들은 집안일에 바쁘다. 아부는 절대 고독 속에서 자기 대면에 차츰하고 있는 출가자들에게, 세상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홀로 고요히 있을 때와 달리, 손님을 나가는 일은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기껏 지켜온 자신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신경 쓰다 보면, 맑게 깨어있던 정신은 혼탁해지고, 내면의 고요는 흐트러지고, 자기 대면의 끈은 어느새 놓치기 십상입니다.

손님은 이때 도적이 됩니다. 이곳을 경계, 또 경계해야 합니다. 이 그물에 걸려 넘어진 선지식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접하려던 손님이 "아차, 도적이구나 싶으면, 바로 나가서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합니다.昆峯稱有賊氣在. 知有賊氣. 須打殺"

그러나, "손님을 뒤따라가지 마십시오!" 뒤따라 보인 손님은 다름 아닌 도적이니... 닦힌 일에 온 마음으로 집중할 뿐, 그 일의 특성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수연무착(隨緣無著), 그야말로, '인연 따라 응하되, 들러붙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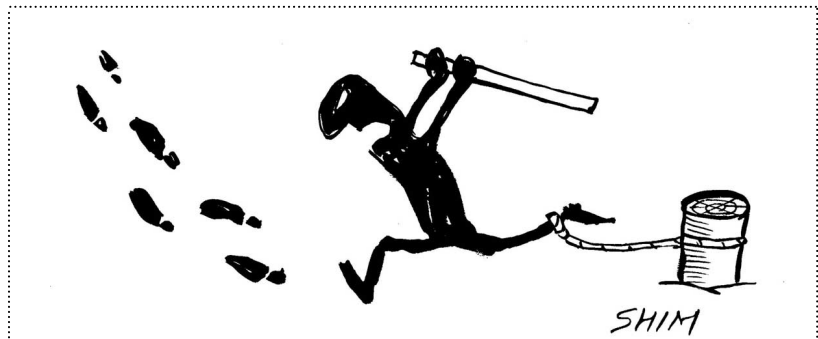
명예와 재산의 물거품, 그림자를 위해 자신의 귀한 불성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래 여거(來來如去), 인연이 오면 맞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도록 무심하십시오.

내가 싫다고 떠나가는 애인의 바지가랑이를 이제 그만 놓아주고, 내 뜻대로 안되는 세상사에 불평불만도 문득 그치고 즐기십시오. 그 희망심(希冀心)의 흔적들을 태우고, 지금 다가오는 얼굴들과 대면하십시오.

<금강경>의 노래처럼, "과거의 영광도 흘러서고, 미래의 기대도 환상이며, 현재의 집착도 다란 물거품일 뿐(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재(在),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응답하겠으며, 구화(誦和)가 어찌 유기(流機)를 끊는 일을 저버리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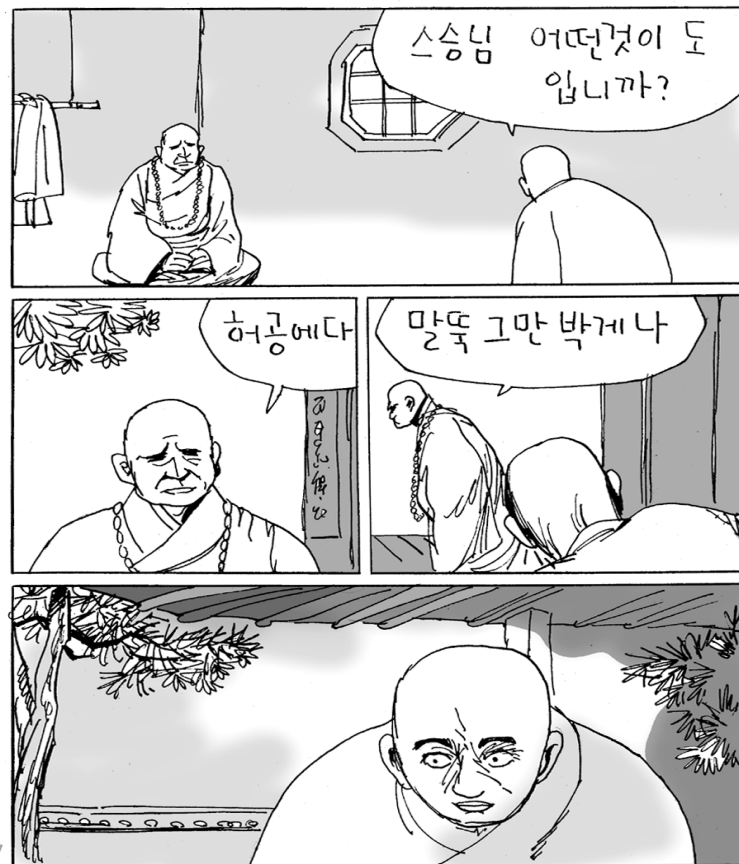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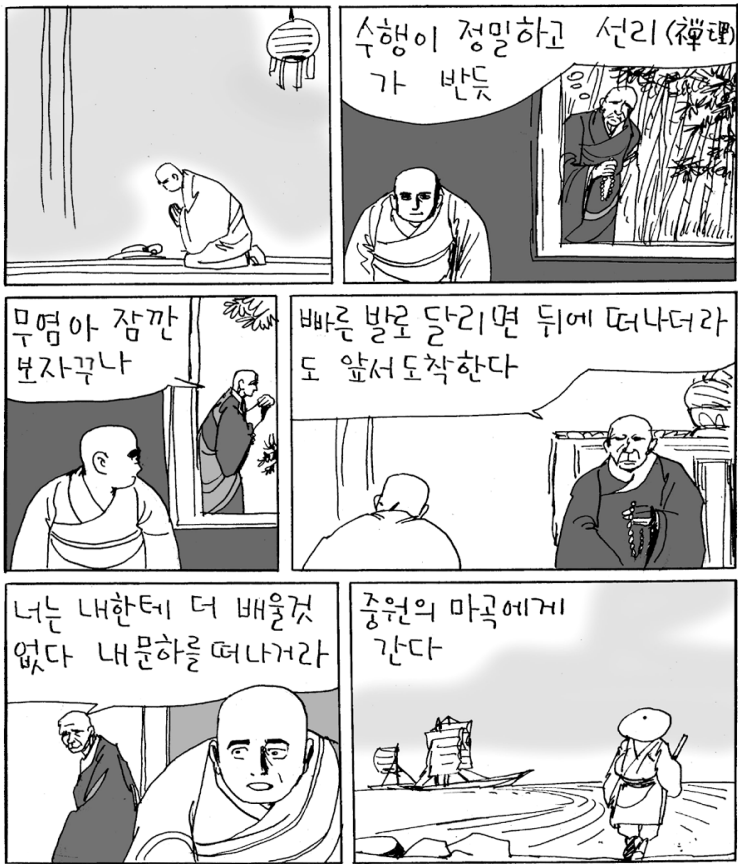
대강 뜻을 집착하실 줄 압니다. 다만 마지막 구절, "묘희(妙喜)가 어찌 무착(無著)의 물음을 응답하겠으며, 구화(誦和)가 어찌 유기(流機)를 끊는 일을 저버리겠느냐"는 구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사파라...

91 무염 스님의 '말뚝'



조태호



무염(無染, 800~888): 구산선문 중 하나인 성주산문의 개조. 당으로 건너가 마곡산 보철 스님에게서 법인(法印)을 받음. 국보 제8호로 지정된 스님의 비가 보령 성주사에 남아있음.

네티즌 교리문답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의미는?

흔히들 연애를 할 때, 이심전심을 잘 해야 한다고 하지요? 불교용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사들이 선 문답을 할 때에도 이 말을 강조하는데요. (초보연예)

답 1 :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고 할 때 "이심전심이지"라는 말을 씁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 뜻이 통할 때도 "이심전심이지"라고 하지요. 흔한 말로 '척하면 알았을 때'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전한다' 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그리고 직지인심(直指人心)이 수반됩니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도 하지요. (선수행자)

답 2 : 무엇을 글도 없이 말도 없이 타인의 마음속에 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는 기록이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 있었던 연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를 비롯한 삼처전심(三處傳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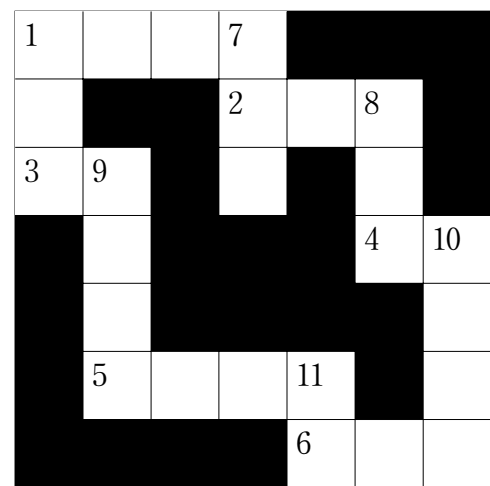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던 부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빙그레 웃어 보였지요.

두 번째 이심전심은 부처님께서 죽림정사 다자탑에서 설법하시던 중 남루한 처림으로 찾아와 대중들이 경멸하는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아무 말 없이 당신이 앉아 있던 자리의 반을 가섭에게 내어 주십니다.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가섭과 부처님이 분별되지 않음을 봅니다. '다자탑전 반분좌(多子塔前 半分座)'의 이심전심이지요.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찾아온 가섭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인 일입니다. '사라쌍수하 꼭시쌍부(娑羅雙樹下 標示雙趺)'라고 합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사이, 상대의 의중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을 때 이심전심으로 마음의 화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불학자)

답 3 : 요즘은 우리 사회에 이 마음(心)을 일컫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일컫는 '노심(盧心)' '박심(朴心)'이 그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눈치 빠른 정치인들은 그 '노심'을 파악하느라 정말로 헤아려야 할 민심(民心)은 안중에도 없다보니 정치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민심과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금강소석)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국화를 비유한 말로 서릿발 속에서도 꽃꽂한 절개를 일컫는 2.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3. 자본과 채무의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 4.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수행법 5.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제거한다는 고사성어 6. 승려의 다른 말.

정답은 26면에

세로

1. 단맛 · 신맛 · 쓴맛 · 짠맛 · 매운맛의 5가지 맛이 난다 하여 붙여진 열매 7. 천기나 열이 통하지 않는 물체 8. 여러 가지 일 9. 고려시대에 비롯돼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 까지 전해 오는 우리고유의 가면극 10.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경관관이나 헌병이 검문하는 일 11. 남한을 이르는 말로 반대말은 이북.